

#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손유경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 1 1992년의 국면적 특수성
- 2 ‘날조된 포스트모더니스트’에 대한 비주류의 도전
- 3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는 모더니즘의 어떤 왜상(歪像)
- 4 주변부의 인식론적 특권과 또문의 포스트모던 전략
- 5 나가며

본고는 1990년대가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경험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드라마틱한 양적 팽창으로 특징지어지는 1992년을 연구 대상 시기로 삼아, 서로 다른 행위주체들이 남긴 도전과 성취의 흔적을 탐색해본 것이다. 1992년경 정점에 다다른 포스트모더니즘 논란 속에서 학계와 문단의 비주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례 없이 좋은 기회를 얻은 듯했다. 그러나 ‘베끼기에도 수준이 있다’는 장정일의 일갈에 드러나듯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예술론은 표절 논란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고 문단 권력은 더욱 공고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게 된다. 이처럼 기성 평단의 헤게모니가 공고히 유지되는 문학 장 안에서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탈근대 철학은 기왕의 여성해방문학운동을 위협하는 위험한 박래품 이상의 의미를 띠지 못하고,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는 모더니즘의 어떤 왜상(歪像)이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담론의 수준과 폭이 이렇듯 제한된 포스트모던 조건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이론적 제휴로 기대될 수 있는 사유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문단 바깥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로 직접 잡지를 기획·편집·인쇄·출간하게 된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문단 내 비주류의 좌절이나 기성 평단의 헤게모니 재생산이라는 제한된 포스트모던 조건을 문단 바깥에서 거꾸로 제약하면서, 기성 학계와 문단의 ‘주류 콤플렉스’를 가시화하고 차세대 페미니스트의 교본이 되는 전위적 콘텐츠를 개발한다. 동시에 또문은 주변부의 인식론적 특권을 바탕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천착함으로써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의 연쇄적 해결을 꾀한다. 1992년 한 해만 관찰해 보더라도 지금껏 우리에게 알려진 ‘90년대적인 것들’은 대단히 제한된 목록으로 구성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성욱, 장정일 같은 문단 내 비주류나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 또문에게 이 시기는 ‘집단적 붕괴감’에 빠진 우울한 날들로 경험되지 않았다.

국문핵심어: 1990년대 문학, 1992년,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여성해방문학,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 모더니즘, 포스트모던 조건, 또 하나의 문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성욱, 장정일

## 1 1992년의 국면적 특수성

지금 이곳의 관점에서 1990년대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포착되는 사실은 그 시기에 한국 근대 문학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기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까지 겪은 터여서, 우리 지식인들은 1990년대가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그 안에서 ‘90년대적 특징’이 발견되기를 성마르게 기대했다.

이 ‘90년대적 특징’을 대변하는 요소로 가장 자주 손꼽혀온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기말 한국 문학의 위기를 자초한 주범 혹은 그러한 위기의 가장 확실한 징후로 보통 거론되었다.<sup>1</sup> 1990년대 문학을 전망하거나 결산하는 좌담들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 근대문학의 기틀로 간주되는 리얼리즘이나 민족문학(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다루어졌다. 더군다나 엄밀히 말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사건과 그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음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의 퇴조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대표적 부작용으로 빈번히 호출되었다. 심지어 백낙청은 프레드릭 제임슨과의 대담에서 “모던한 것과 포스트모던한 것이 동시에 몰려들고 있고 그것도 주로 신식민지적 문화침략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sup>2</sup>다고까지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도전자’나 ‘손님’ 또는 심지어 ‘침략자’로 불렸다면 그것을 그렇게 부른 이들은 스스로를 ‘패권자’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이 급부상한 시기이기도 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페

---

1 1990년대 이후 한국지성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조로 포스트모더니즘을 꼽은 나종석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독단성을 비판하면서 다원적인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것을 거쳐 자유주의에 이르는 도정은 90년대 이후 한국지성사에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나종석, 「90년대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사 연구—학제적 주제의 사회인문학적 탐색 시도」, 『철학연구』 제120집, 대한철학회, 2011, 102쪽.

2 프레드릭 제임슨·백낙청, 「특별대담—맑시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화운동」, 『창작과비평』 제18호, 창작과비평사, 1990.3, 285쪽.

미니즘 문학은 1930년대의 1기에 이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는 문학사적 평가<sup>3</sup>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1980년대의 치열한 여성해방운동과 문학적 실천을 바탕으로 “19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성주의 비평과 창작”<sup>4</sup>이 야말로 세기말 우리 문학이 겪은 결정적 변화의 하나였다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 1990년대를 본격적 연구대상 시기로 삼은 논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영인과 조연정은 1990년대 문단 지형도를 한층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수행해 눈길을 끈다. 서영인의 관찰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여성문학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페미니즘 연구자 및 비평가 집단은 학술 장과 문학 장 모두에서 담론 생산의 주체로 활약하지 못했다. 그것은 1990년대 문학 장이 지식인/남성/작가 중심의 ‘문학주의’<sup>5</sup>로 되돌려진 형태, 즉 1980년대 말 복간된 『창작과비평』 및 『문학과사회』가 1980년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문학 주체들을 배제한 채 1990년대 담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 재편성된 이러한 지식인 남성 위주의 문단 질서 속에서 1980년대 여성 무크지 출신의 여성문학 연구자 및 비평가들은 기성 평단의 “필요에 따라 호출”<sup>6</sup>되었을 뿐 여성문학 담론의 주도권을 형성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그런가 하면 조연정은 『문학동네』가 창간된 1995년을 한국 문학사의 어떤 ‘기원’으로 확정지으려는 386세대 『문학동네』 비평가들의 욕망을 조명하면서, ‘문동’ 발 미적 대중주의가 “상업주의 혹은 대중주의라는 범박한 말로 폄하될 수만은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지류로서 문학사적 정당성을 지니게”<sup>7</sup> 되는 일련의 과정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조연정의 또 다른 글에서는, 1990년대

3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13쪽.

4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제 51집, 상허학회, 2017.10, 39쪽.

5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31쪽.

6 위의 글, 19쪽.

7 조연정, 「『문학동네』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34쪽.

비평가들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주의’가 90년대 문학의 새로운 전위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전유되면서 결국 문학의 특권이 강화되는 양상이 논의되었다.<sup>8</sup>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 이제 더 이상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나 여성문학의 부상이라는 단편적 사실들로써 1990년대 문학 장을 설명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여성문학의 양적 증대가 여성 연구자 및 비평가의 담론 주도권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1990년대의 ‘대표적 박래품’으로 폄하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 씌어지는 문학사에서 현대문학의 어떤 기원으로 재평가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90년대적 특징’들이 과연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목록화된 것인지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만남으로 형성된 1992년경의 국면적 특수성에 주목해보려는 본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그 시기가 경험되었는지를 우선 따져보는 일이다. 이를테면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의 대립 모델 붕괴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무제한적 팽창에 대한 지식인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음은 물론이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 해체가 한국 지식인들에게 “집단적인 붕괴감”<sup>9</sup>을 안겨주었다는 식의 진단은 좀 더 상대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집단적 붕괴감’에 사로잡히기는커녕 매우 생산적이며 활기찬 담론 생산자로서 그 시기를 경험했던 문단 안팎의 주체들—창비나 문지 그 어디에도 마땅히 적을 두지 않았던 소장 문인이나, 문단 바깥에서 활동한 페미니스트 그룹—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균질적 시기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와 다르다’는 직관에 의지해 1990년대적인 것들을 추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갖는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1990년대를 서로 다르게 살아간 행위주체들의 경험에 입각해 그 시기를 좀 더 작은 단위들로 분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8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48호, 대중서사학회, 2018.

9 이명원, 「문학의 탈정치화와 포스트 담론의 파장—민주화 이후 한국문학의 전개와 쇠락」, 『민족문화연구』 제5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32쪽.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드라마틱한 양적 팽창을 목격한 1992년 한 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되 다음 세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당시의 지성사적 풍경을 재구성하려 한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예술론이 작품 표절 논란과 오버랩되는 양상. 이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은 표절도 허용한다’는 식의 인식이 퍼짐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수준’이 결정적으로 저하되면서 능력 있는 비주류 신예들의 위상이 동반 하락한 사정을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다. 둘째, 서구 탈근대 사상이 기왕의 여성해방문학론자들의 견해와 엇갈리는 양상. 기성 평단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문학 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폭’이 리얼리즘에 대한 도전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제한되는 과정이 3장에서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수준’과 ‘폭’이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의 관점에 의해 획기적으로 재조정되는 양상을 다룬다. 1992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에는 지식인과 일반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1970-80년대의 ‘해방 담론’들에 젖줄을 댄 여성해방문학을 역사적 자양분으로 삼으면서도 동시대 새로운 이론과 문화적 실천들을 고르게 흡수함으로써 여성해방문학이 거느린 해방 담론의 그늘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또문』은 이러한 연속과 단절, 흐름과 결절을 기록한, 여러 지층으로 이루어진 매체이다. 1985년에 창간된 『또문』이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운동에서 차지하는 ‘빛나는 성좌’로서의 위상은 이해령의 작업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나<sup>10</sup> 자체 출판 조직을 갖춘 1990년대 이후 『또문』의 궤적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1990년대에 접어든 또문 동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균질적 사조 또는 사상으로 간주해 단지 옹호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국면적 특수성에 따라 페미니즘과 적절히 절합(articulation)시킨 장면들에 주목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앞서 서술한 세 가지 장면에 드러나는 바 1992년경 정점에 도달한 포스트모더니즘 논란이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10 1980년대를 “전무후무한 여성문학의 시대”로 명명하고 그 시대 여성해방문학운동의 ‘빛나는 성좌들’을 추적한 이해령은 “여성운동의 민족민주운동에의 기여가 곧 민족민주운동의 여성주의적 강화로 귀결되지는 않았다”(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상허학회, 2016.6, 423쪽)음을 강조했다.

조건'<sup>11</sup>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품처럼 사라진 것으로 기억되는 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을 현재적 유산으로 역사에 재기입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2 '날조된 포스트모더니스트'에 대한 비주류의 도전

우리에게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으로 알려진 1992년도의 표절 논쟁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맥락들이 개입돼 있다. 문단 내 비주류 신예(이성옥, 장정일)의 부상과, 외국문학(특히 영문학) 전공자 내부의 기류 변화가 그것이다.

당시 류철균이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가 제1회 작가세계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이 표절 논란의 발단이었다. 포문은 연 것은 소장 비평가 이성옥이다. 그는 위 소설을 한 마디로 말해 표절로 얼룩진 “함량미달”<sup>12</sup>의 작품으로 결론지었는데 다름 아닌 “작가의 철학적 한계”<sup>13</sup>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 점이 위 비평문의 핵심이었다. 말하자면 “은우의 몰락은 인식론적으로만 국한해 보더라도 자신의 주관적 관념성 때문이지 포스트모던한 시대가 그 몰락의 근원적 이유라고 볼 수 없”<sup>14</sup>으며 정임이라는 인물이 그려내는 것 또한 “‘한때’ 마르크스주의적 지식인의 비극이 아니라 ‘낭만주의적 운동관에 어울리는 허무주의(청산주의)적 파산’일 뿐”<sup>15</sup>이라는 것이 이성옥의 냉정한 판단이었다. 그에 따르면 은우 같은 “비문제적 지식인”으로써는 결코 “당대 지식인의 지형에 대한 독자들의 반성적 독서를 촉구”<sup>16</sup>할 수 없다.

---

11 리오타르는 “가장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의 지식의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포스트모던의 조건』을 집필했다면서, 이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 “포스트모던”(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19쪽)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포스트모던 조건’은 리오타르의 위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12 이성옥, 「심약한 지식인에 어울리는 파멸」, 『한길문학』 제13호, 한길사, 1992년 여름, 291쪽.

13 위의 글, 291쪽.

14 위의 글, 283쪽.

15 위의 글, 287쪽.

주목할 것은,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의 이러한 실패가 기실 작가의 ‘비역사적 인식’과 ‘철학적 빈곤’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이성옥이 매우 상세하게 논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알려진 사실과 사뭇 다르게, 정작 이성옥이 밝혀내려 한 것은 논란이 되는 작품의 표절 여부가 아니라 표절이라는 심각한 위반을 가능케 한 작가 의식 자체였다. 즉 이성옥은 ‘이인화는 이리저리한 표절을 해서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인화는 (결국) 표절을 하였는데 (애초에) 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고 그 답을 구해 본 것이다.<sup>17</sup> 탐구의 결과 이성옥은, 류철균이 자신의 표절을 가리켜 차용 범주에 드는 혼성모방(pastiche) 기법이라 강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용의 의도성과 공공연함”을 독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도용”일 뿐이라 단언한다.

견고한 논리를 구사하는 이성옥의 이러한 비판을 류철균이 정면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즉 류철균은 작가의 ‘철학적 빈곤’이라는 핵심 논제를 비껴간 채 다만 “내가 여사여사한 곳에서 베꼈다고 주장하는 이성옥씨의 예증은 전부 옳”지만 그건 ‘일부러’ 베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데 그친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혼성모방이란 소설 속에 ‘믿을 수 없는 ①’나’를 만드는 기법이다. 현실 속을 걸어 다니는 어떤 인물을 재현한 것이라는 ‘재현’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기원’이 없는, 다른 많은 소설들의 모사로 이루어진 ②’나’를 만든다.

내가 여사여사한 곳에서 베꼈다고 주장하는 이성옥씨의 예증은 전부 옳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③정임의 ‘나’에서 ④나의 문장은 하나도

16 위의 글, 290쪽.

17 “『내가』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 결코 혼성모방에 대한 시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작품의 내용적 파행성을 분석, 적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성옥, 『‘참을 수 없는’ 최근 소설들의 ‘가벼움’』, 『실천문학』 제27호, 실천문학사, 1992년 가을;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130쪽.

## 없다.(강조-인용자)<sup>18</sup>

인용문에서 ①-③의 ‘나’는 정임이라는 인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임은 현실 속에 기원을 갖지 않고 다른 소설 속에서 짜깁기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 류철균의 주장이다. 그러나 “나의 문장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의 ④나는 정임이라는 인물이 아니다. ④나는 그 인물을 창조한 작가 이인화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의 문장은 하나도 없다. ‘나=정임=등장인물’이 현실에 기원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나=작가’가 자신의 문장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의 문장만으로 소설을 썼다는 것을 합리화해 줄 수는 없다. (허구적) 인물은 재현의 원칙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환상 소설에서처럼 인물은 날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작가는 자기 문장으로 소설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류철균의 제반박에 대한 이성욱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인화의 소설은 “표절 혹은 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sup>19</sup>다는 것이다.

이성욱의 빈틈없는 대응에 당사자 류철균이 아니라 제3자인 영문학자 김옥동이 개입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적어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전적으로 독창적인 작품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류철균을 지지한 것이다. 김옥동은 “리얼리스트들이나 모더니스트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예술의 독창성이나 창조성에 깊은 회의”를 품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독창성이나 창조성은 어디까지나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예술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sup>20</sup>다면서 이인화의 표절을 ‘패스티시(혼성모방)’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인화씨에 대한 이성욱씨의 비판은 리얼리즘 미학의 옹호나 거의 다름없다”<sup>21</sup>는 김옥동의 발언이었다. 이성욱을 ‘리얼리즘 미학의 옹호자’로 부른 것은 김옥동의 분명한 이론적·전략적 착오였다. 정작 이성욱은, 우리 문학사에는 모더니즘 작품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에 “모더

18 류철균, 「새 기법 ‘관행’으로 평가 말자」, 『중앙일보』, 1992.5.18.

19 이성욱, 「정당성 잃은 인용은 곧 표절」, 『중앙일보』, 1992.5.21.

20 김옥동, 「‘리얼리즘’의 잣대를 버려라」, 『중앙일보』, 1992.5.28.

21 위의 글.

니즘 작품과의 비평적 긴장을 통한 다양한 평가의 경험 역시 그리 깊지 못”<sup>22</sup>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낸 몇 안 되는 비평가였다. 그는 모더니즘을 쉽게 기각하는 일군의 기성 비평가들을 가리켜 “논리실증주의 하나만으로 우발적인 야전 상황을 재단”하려는 “야전의 참여 경험 없는 교관”<sup>23</sup>이라 부른, 리얼리즘 비판자였다.

이인화 소설에 대한 이성욱의 정당한 비판을 리얼리즘 옹호론으로 둔갑시킨 김옥동의 빗나간 주장이 문제인 것은, 이인화를 공격하는 당대 여러 필자들을 리얼리스트로 인식하게끔 하고, 결과적으로는 리얼리즘 진영이 실제보다 훨씬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기법을 ‘자처’하는 이인화류의 소설에 대한 비판은 실로 매우 다양한 필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었다. 신예 비평가 이성욱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 볼 영문학자 김성곤과 도정일, 소설가 장정일 등을 리얼리스트로 범주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영문학 내부 사정으로 눈을 돌려보자. 1970년대 ‘계간지 시대’를 이끌었던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은 1980년에 강제 폐간되었다가 1987년 복간된 이후 1990년대로 접어들어 어김없이 한국 문학 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이 두 계간지가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 등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특히 창비의 위상은 영문학자 백낙청이 한국 지성계에 발휘한 이론적·실천적 영향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창비 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일군의 영문과 교수들이 주류 리얼리즘과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기론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눈에 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김성곤, 권택영, 김옥동, 도정일, 정정호 등이 여기 속했다.<sup>24</sup> 상기한 바대로, 소설가 이인화가 자신에게 쏟아진 표절 의혹에서 벗어

22 이성욱,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19쪽. (『비평의 길』, 『문학동네』 제20호, 문학동네, 1999년 가을)

23 위와 같음.

24 이동하의 다음과 발언을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새삼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문단의 현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사회적·역사적 차원에서 자신이 지극히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일종의 좌절감 혹은 열패감

나기 위해 어처구니없게도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인 ‘패스티시’를 앞세웠을 때 김옥동이 그 견해를 지지해버림으로써 “개념들의 잦은 오용”으로 인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신용 실추”<sup>25</sup>를 자초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문학자 내부에서도 김옥동에 대한 비판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1980년대 말부터 일찍이 영미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활발히 소개해 온 김성곤은 김옥동도 참가한 한 좌담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으니 남의 것을 마구 베껴도 된다”는 파렴치한 사조는 아니라”<sup>26</sup>는 말로써 예의 그 김옥동 식 포스트모더니즘 옹호론을 정면에서 반박한다. 그런 논리로써 표절 행위를 옹호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도정일도 이에 가세한다. 그에 따르면 이인화의 혼성기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옥동이 끌고 들어온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 미학은 애초에 결코 “남의 텍스트들로부터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절취를 지시하는 개념이 아”<sup>27</sup>니다. 크리스테바의 간텍스트성 이론을 오해하고 왜곡했다는 점에서 김옥동은 “간텍스트성 개념의 ‘포스트모더니즘적 남용’을 일삼는 몇몇 미국 이론가들”<sup>28</sup>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것이 도정일의 판단이었다.

일부 문인과 학계의 이런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옹호하는 미학으로 한 번 낙인찍힌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sup>29</sup> 그렇지 않아도 일찌감치 리얼리즘 문학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혹

---

에 해당하는 감정을, 바로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를 빌려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남호·박상천·이동하, 「'91 문학총평」, 『현대문학』 제444호, 현대문학사, 1991.12, 53-54쪽.

- 25 황중연, 「『높을 건너는 법』 혹은 포스트모던 로맨스-소설의 탄생—한국문학의 1990년대를 보는 한 관점」, 『문학동네』 제89호, 문학동네, 2016년 겨울, 449쪽.
- 26 권택영·김성곤·김옥동·도정일·신정현·이정호, 「특집좌담: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쟁점들」, 『미국학』 제15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2, 76쪽.
- 27 도정일, 「시물레이션 미학, 또는 조립문학의 문제와 전망—이인화의 ‘혼성기법’이 제기하는 문제들」, 『문학사상』, 문학과사상사, 1992.7, 312쪽.
- 28 위의 글, 313쪽.
- 29 조연정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문학의 ‘진정성’ 논의가 대세를 이룬 당대의 감각 안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위계를 무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가 피상적으로 수용되고 결국 산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조연정, 앞의 글, 351쪽.

독한 비판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sup>30</sup>던 영미문학자 중심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표절 논란과 오버랩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정보를 먼저 획득했다는 점 하나만을 유리한 고지로 삼아 이론적 변방에 그 최신성을 살포하는 데에 재미를 붙였던 유학과 포스트모더니즘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갓진 객담으로 여겨도 무방”<sup>31</sup>하다는 이성욱의 신랄한 사후적 비판에 새삼 귀 기울이게 되는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장 비평가 이성욱, 영문학자 도정일 등과 더불어 1992년의 표절 논란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은 장정일이다. 1992년 한 해 동안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들 중, 논쟁의 도화선 역할을 한 이성욱의 글 「‘심약한’ 지식인에 어울리는 파멸」을 가장 ‘성실하게’ 읽고 그에 ‘진지하게’ 반응한 것은 장정일이었다. ‘성실한’ 독해와 ‘진지한’ 반응에 강조 표시가 쳐진 이유는, 당대의 기성 평단과 이후 문학사에서 장정일이 차지하는 자리가 갖는 문제성 때문이다. 그는 1987년 『햄버거에 관한 명상』으로 데뷔한 후 1990년대의 혼란을 구현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성장한 터였고<sup>32</sup> 1997년 필화사건 당시에는 잡지 『상상』 출간을 앞두고 첫 편집회의가 열린 날 “검찰청에 끌려가 그 날 바로 구속”되었으며<sup>33</sup> 문광훈에 의해 “맹목적 열정”을 지닌 “무시무시한 전업 작가”<sup>34</sup>로 평가된 바 있는 문제적 작가이다.

우리 문학사의 “돌연변이”<sup>35</sup>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은 장정일이 1992년 표절 논란의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에게 열릴 수도 있는 어떤 기회였다. 한 마

30 윤건차, 장화경 역,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당대, 2000, 160쪽.

31 이성욱, 앞의 책, 17쪽.

32 “장정일 소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는 (...) 정치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야유, 현저한 자기방기와 탈이념화, 가부장적인 권위의 지움, 여관방 순례, 그리고 혼음과 남색 등 수없이 찾아진다면서 장석주는 장정일을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선두 주자”로 명명한다. 장석주, 「세기말적 상상력,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현단계」, 『문학정신』 제52호, 열음사, 1991.1, 225-226쪽.

33 장정일 인터뷰, 『경향신문』, 2016.9.11.

34 문광훈, 『정열의 수난—장정일 문학의 변주』, 후마니타스, 2007, 123쪽.

35 서영채, 「떠도는 알레고리—장정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446쪽.

다로 말해 베끼기에도 수준이 있으며, 자신의 베끼기에는 철학이, 논란이 되는 다른 작품들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도발적 평문 「‘베끼기’의 세 가지 층위」의 핵심이었다.

장정일은, 이성욱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는 하나 소설가가 자신이 인용하는 텍스트의 출처를 각주 달 듯 모두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결국 관건은 ‘작품의 수준’에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베끼기’한 작품보다 내가 ‘베끼기’ 해놓은 작품이 더 낫지 못할 때 진실로 윤리가 문제 된다.”<sup>36</sup> 베끼기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정일은 김옥동을 염두에 두고 “인류의 기록과 대조하면 표절 아닌 것이 없다는 따위 말은 책임 있는 비평가나 대학교수가 생명을 걸고도 절대 할 수 없는 말”<sup>37</sup>이라 단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장정일이 이성욱의 평론은 이인화 소설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 작품이 표절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씌었음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점이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표절 작품으로 낙인찍은 결정적 문건으로 대개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성욱의 평론 「‘심약한’ 지식인에 어울리는 파멸」은 “허무주의적 주인공(은우)이 벌이는 작품 내적 요구와 자유주의적 지식인(이인화)이 가진 세계관에 의해, 모방 혹은 표절의 기법인 패스티시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성’을 밝히려 한 글”<sup>38</sup>이라는 것이다. 베끼기에도 수준이 있다는 신랄한 비난의 끝에서 장정일은 류철균을 아래와 같이 ‘날조된 포스트모더니스트’라 일갈한다. 어쩌면 그는 류철균과 자신이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자신의 본심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 그를 가까이 사귀진 못했지만 평소에 류철균이 쓴 평론을 모아 읽으면서 필자는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재능을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이인화라는 필명마저 베끼기된 것이라면 왜 그의 논리를 수궁해

36 장정일, 「‘베끼기’의 세 가지 층위」, 『문학정신』 7-8월 합본호, 열음사, 1992, 211쪽.

37 위의 글, 212쪽.

38 위의 글, 217쪽.

주지 못하랴 하는 생각이 『내가』를 둘러싼 표절시비에 대한 나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아예 표절(/패스티시)을 작심하고 소설을 쓴 데 있지 않고, 소설가 이인화를 변호하기 위해 류철균 자신이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날조된 데 있다. 나는 그 점에 크게 실망했다.<sup>39</sup> (강조-인용자)

류철균을 ‘날조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부른 장정일의 위 평문은 1992년 우리 문단을 달군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과연 어떤 수준이었는가’가 아니라 ‘정작 어떤 수준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후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이성욱의 “아주 뛰어난 평론”<sup>40</sup>에 공명했던 장정일은 이성욱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기법’이 아닌 ‘수준’임을 역설한다. 이성욱이 갈파했듯 우리 문학사에는 모더니즘 작품 계보와 모더니즘론 자체가 부족한데, 『내가...』와 같은 함량미달의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로 오인되는 바람에 ‘수준 있는 비주류/非리얼리즘 문학’을 추구한 이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비좁아져버린다.<sup>41</sup> 언론과 학계가 앞 다투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으로 이름 붙인 담론 현장에서 이성욱과 장정일이 정작 목도한 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작품’을 두고 별이는 지식인들의 요란한 설전이 아니었을까? 창비와 문지를 지키는 문단의 주류는 이 혼란을 점잖게 지켜보다가 한 번씩 혼수를 돌 따름이었다. 이성욱과 장정일을 클로즈업한 1992년 문단 풍경에는 이처럼 기성 문단 어디에도 마땅히 적(籍)을 두지 않은 채 “모든 권력과 독재는 리얼리즘에서 나온다”<sup>42</sup>고 주장한 비주류 신예의 도전이 흔적처럼 남아 있다.

39 위와 같음.

40 위와 같음.

41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비판이 아니라 조소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신세대 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이고 또한 그것은 창작 윤리의 타락이라는 진기한 도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신세대 문학은 너나할 것 없이 무책임하고 경박한 것이라는 비웃음의 과녁이 되어 호된 줄경을 치렀다. 장정일의 소설이 받아야 했던 대우 역시 이러한 사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영채, 앞의 책, 430쪽.

42 장정일, 「개인기록」, 『문학동네』 제18호, 문학동네, 1999년 봄, 139쪽.

### 3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는 모더니즘의 어떤 왜상(歪像)

1992년 우리 문단과 학계에 떠오른 또 다른 이슈의 하나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만남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제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책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편자 서문이 실린 이소영·정정호 공편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한신문화사, 1992)에는 프레드릭 제임슨, 토릴 모이, 낸시 하트삭, 수잔 보르도, 리타 펠스키, 샌드라 하딩 등의 글이 고루 번역·소개되어 있다. 편자들은 책에 실린 글 전체를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둘 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로 각각 분류해 놓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책의 구성이 보여주듯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교섭이 그 자체로 긍정되거나 부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해되는 지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왕의 리얼리즘을 능가하는 힘으로 페미니즘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이론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러한 힘이 페미니즘을 다름 아닌 페미니즘 자신의 역사와 결별하도록 만들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는 점이다. 당시 상황을 김미현은 “억압되었던 것이나 주변적인 것의 복귀라는 포스트모던적 감각과 가부장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라는 페미니즘적 인식 사이에 교차점”<sup>43</sup>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불가능성·다양성·비결정성이 페미니즘을 무분별한 상대주의나 무비판적인 다원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유대감을 감소시키거나 여성문학을 무장 해제시킨 측면도 있”<sup>44</sup>었다고 요약한다.

김미현이 지적한 후자의 요인을 내세워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이론적 제휴를 비판한 글이 바로 『여성과 사회』 3호(1992. 2)에 실린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폐기」이다.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 사이에서 진행된 문학논쟁

43 김미현, 「이브, 잔치는 끝났다」,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39쪽.

44 위의 책, 40쪽.

을 검토한 이선옥에 따르면 ‘또문’ 그룹은 “젠더의 역사적 문화적 구성”에 초점을 둔 반면 ‘여성’ 그룹은 “젠더와 민족, 계급 범주의 복합성과 교차의 해석에 좀 더 집중”<sup>45</sup>했는데, 창비의 무크지 『여성』이 제3호부터 『여성과 사회』로 제호가 바뀌어 발행되기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여성과 사회』의 이론적 입장이 민족문화론에 맞닿아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sup>46</sup>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의 필자들인 김영희·이명호·김영미는 우선 포스트모더니즘론이 “민족문화론의 ‘폐기’를 함축”<sup>47</sup>한다는 선언으로 글 전체를 연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느냐 옹호하느냐에 관계없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타자’를 거론할 때 늘 언급되는 것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논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운동의 결합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당연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해방론의 행복한 만남이 과연 그리한지 따져보”<sup>48</sup>아야 하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운동의 결합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논점은, 그동안 민족문화론이라는 전체 의제에 아무 문제없이 포함되어 왔던 부문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박래품이 갑자기 ‘개입’하고 ‘간섭’해 들어옴으로써 그나마 어렵사리 이루어온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첫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자들이 ‘타자’의 대표 주자로 여성을 내세우면서 여성성을 강조해 결과적으로 남녀 구별을 (재)강화한다는 점, 둘째, “데리다의 해체론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경향”<sup>49</sup>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문화론을 검토한다. 이들은 포

45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2쪽.

46 창비에서 3호까지 발행된 무크지 『여성』은, 1989년 10월 여성사연구회와 아현여성연구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한국여성연구소 결성 이후 『여성과 사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발행된다. 이해령, 앞의 글, 417-419쪽.

47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992년 봄, 35쪽.

48 위의 글, 38쪽.

49 위의 글, 42쪽.

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 결국에는 여성 범주를 해체하는 경향으로 흐른 데 반해,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문학론에서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수용됨에 주목하고, 특히 뤼스 이리가레, 엘렌 식수, 질리아 크리스테바 등 프랑스 여성 이론가들의 언어 철학과 글쓰기 이론을 소개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언어 자체가 가부장적 혹은 남성적”<sup>50</sup>이라는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이론의 공과를 설명하는 필자들의 작업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언어질서 혹은 상징질서가 ‘본질적으로’ 남성적이라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는데 “구체적인 역사적 언어들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남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초역사화하고 본질화하는 시각”<sup>51</sup>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탈근대 철학에 대한 필자들의 이해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또는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필자들의 견해가 압축적으로 제시된 마지막 소설 ‘포스트모던 여성문학비평’에서 감지되는 주류 리얼리즘 평단의 영향력이다. 필자들은 여기서 프랑스 여성 이론가들이 주로 “모더니즘에 속하는 작품들”의 언어적 실험이나 해체에 주목함으로써 “반리얼리즘적인 지향”<sup>52</sup>을 드러낸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여성해방비평은 모더니즘 작품을 주로 다루며, 리얼리즘 작품을 다룰 때는 작품 내에서 ‘사실주의’를 해체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읽어낸다. 이런 면에서 그들 나름의 가치평가와 정전 구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모더니즘 작품을 ‘해체적’으로 혹은 ‘담론적’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새로움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모더니즘에 대한 또 하나의 옹호론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sup>53</sup> (강조-인용자)

---

50 위의 글, 65쪽.  
 51 위의 글, 69쪽.  
 52 위의 글, 71쪽.  
 53 위의 글, 75쪽.

필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주의적·상대주의적 사고가 기왕의 여성해방비평에 간섭해 들어와 큰 해악을 미쳤는데,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모더니즘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 등장하면서 “모더니즘적인 문학관이 득세하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기본 언어관·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sup>54</sup>이라고 이들은 진단한다.

논의가 여기에 이르면 위 글의 필자들이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문학론을 그토록 경계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분석을 위해 잠시 두 갈래 길로 우회하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당대 소위 ‘포스트담론’의 난맥상이다. 이론과 철학에 국적이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 주장이 무색하게도 종종 ‘불란서제 이론’이라는 라벨을 달고 소개되었던 리오타르나 푸코, 들뢰즈 등의 탈근대 철학이 1990년대 한국 지성계에 미친 영향은 한 마디로 정리되기 어렵다. 이정우의 말대로 (미국식) 포스트모더니즘과 (프랑스) 탈근대 철학이 혼용되면서 많은 혼동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sup>55</sup> 본고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러한 혼란 자체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해 소위 ‘포스트담론’으로 명명되었던 일련의 이론들이 1990년대 문단과 학계에서 차지했던 위상의 어떤 특수성이다.

한 마디로 말해 ‘포스트담론’으로 묶인 일군의 이론들은 ‘몰라도 되는’ 혹은 ‘안 읽었지만 인용해도 무방한’ 이론이었다. ‘모르면 창피한’ 마르크스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위상이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텍스트가 치밀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거의 분석되지 않고 거칠게 요점 정리되고”<sup>56</sup> 있다는 김진석의 지적이 프랑스 이론을 대하는 당시 학계의 태도를 대변해준다. 이정우는 “프랑스 철학의 진수를 채 맛보기도 전에 엉뚱하게 희화화되고 속화되고 매도되는 일도 없어졌

54 위의 글, 76쪽.

55 이정우, 「포스트모더니즘은 없다 - 우리에게 프랑스 철학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월간 사회평론 길』 제97권 6호, 사회평론, 1997, 191쪽. 도정일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철학논의, 사회이론, 문화예술론 등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정일, 「포스트모더니즘 - 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비평』 제71호, 창작과비평사, 1991년 봄, 304-306쪽.

56 김진석, 「에피모더니즘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사회』 제4호, 문학과지성사, 1991.11, 1574쪽.

으면 한다”<sup>57</sup>고 당부할 정도였다. 최근 진태원은 당시의 이런 지적 풍토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포스트담론은 주로 상투어구의 반복, 짜깁기, 획일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58</sup> 그는 미국에서 ‘프랑스 이론’이라는 지적 합성물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밝힌 프랑수아 퀴세의 표현을 빌려 “우리나라야말로 ‘한 줌의 인용 속에 프랑스 이론 전체가 포함되는’ 일, ‘너무 자주 반복·변형되어 원래의 텍스트는 실질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곳”<sup>59</sup>이라 비판한다. “텍스트, 인간의 죽음, 거대서사의 종언, 시물라크르, 노마드, 리즘, 파놉티콘, 송고 등이 뒤범벅이 된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담론이라는 비빔밥이 (...) (원전에 대한 증거 없이) 소개되고 인용되고 비판되고 또 경우에 따라 찬양되곤”<sup>60</sup> 했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각종 탈근대 이론에 대한 주류 지식인 집단의 반응은 대체로 과도한 일반화 및 환원주의(‘포스트증후군’ ‘포스트담론’ ‘포스트주의’)적 태도를 기저에 깔고 있었다. “동질적이고 유일한 텍스트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없”<sup>61</sup>다거나 “‘포스트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sup>62</sup>다는 항변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문학 분야로 시야를 좁혀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을 숭배 질병처럼 취급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낙청을 비롯한 당대의 리얼리즘 비평가들은 오랜 기간 루카치에 기대어 모더니즘을 비난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결국 모더니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논의를 펼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경화된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의 한 형식이자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근대적 사유의 연속”<sup>63</sup>이라는 것은 특수한 발견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 가깝다. 이를테면 포스트마

57 이정우, 앞의 글, 191쪽.

58 진태원, 「‘포스트’ 담론의 유행들—에도의 에도를 위하여」, 『민족문화연구』 제5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5쪽.

59 위의 글, 27쪽.

60 위의 글, 29쪽.

61 김진석, 앞의 글, 1573쪽.

62 이정우, 앞의 글, 192쪽.

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어떤 형태로든 ‘연속’되지만 그것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리상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 진영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관련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거부할 명분을 준 듯한 자세를 취했다. 리얼리즘 vs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립 구도 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는 행위는 모더니즘을 향한 리얼리즘 진영의 길고 긴 비난의 ‘포스트’적 재탕이었던 셈이다.

예컨대 1992년 창비의 한 좌담에서 최원식은 당대를 “소련 없는 세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문단과 학계에 “포스트증후군이 광범위하게 스며”<sup>64</sup> 든 시기로 규정한다. 1930년대 카프가 해체된 이후 “모더니즘의 도전”<sup>65</sup>으로 말미암아 진보적 문학운동이 궤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민족문학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무분별하게 수입된 사조”<sup>66</sup>로 진단한 조만영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모색”은 결국 “구식 모더니즘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sup>67</sup>고 결론 내린다. 윤지관은 아예 포스트모더니즘을 우리 사회에 ‘번지는’ 일종의 유행(성 질병)으로 낙인찍는다.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식민지주의적인 풍토에다 저널리즘의 선전까지 업고서 무슨 유행어처럼 번지다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 성격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여기저기 나오게 됐고,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민족문학 전체의 조정을 요구하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sup>68</sup>

63 “postmodernism is a continuation of modern thinking in another mod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ostmodernism/>

64 최원식·윤지관·유중하·조만영,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제 76호, 창작과비평사, 1992년 여름, 7쪽.

65 위의 글, 12쪽.

66 위의 글, 9쪽.

67 위의 글, 11쪽.

68 위의 글, 9쪽.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순응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타락한 자식”<sup>69</sup>으로 보인다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모순을 포착하여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 온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종의 자위행위에 빠져”<sup>70</sup>든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한 리얼리즘’ vs ‘병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병리학적 접근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그 자체로 건강하거나 병들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소화하느냐에 따라 건강함과 병들이 좌우된다. 지금 이곳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건강한’ 만남을 가진 다른 주체들이 있었는지 새삼 돌이켜봐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의 필자들이 스스로 전개한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뒤로한 채 글의 막바지에 이르러 모더니즘 비판론으로 회귀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문학론은 그것이 여성해방운동에 새로이 기여하는 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했기에, 그리고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결국은 모더니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자들은 다소 먼 길을 돌아온 듯했다. “크게 보아 모더니즘적 세계관·문학관의 연속이자 그것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한 포스트모던한 논리는, 여성현실을 풍부히 이해하는 가운데 억압적 구조들을 규명하고 타파해나가는 데 있어서나 그 일환으로 작품을 쓰고 이해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도움이 되기보다 이같은 노력을 애당초 부질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기본 논지였다.”<sup>71</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맞서서 여성해방론적 시각에서 “리얼리즘을 풍부히”<sup>72</sup> 하자는 필자들의 주장은 예견된 결론이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은 문단 권력이 만들어낸 모더니즘의 어떤 왜상(歪像)이었던지도 모른다.

69 김선학·김명인·권오룡, 「문학의 위기, 위기의 문학」, 『현대문학』 제438호, 현대문학사, 1991.6, 53쪽.

70 강내희,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월간 사회평론』 제91권 6호, 사회평론, 1991, 188쪽.

71 김영희·이명호·김영미, 앞의 글, 79쪽.

72 위의 글, 78쪽.

그로부터 약 1년 후 발표된 태혜숙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는 영미문학비평가 미니 브루스 프랫(Minnie Bruce Pratt),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 낸시 하트삭(Nancy Hartsock) 등을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자로 소개한 글이다. 여기서 태혜숙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해방론이 결합된 이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sup>73</sup>이 맹목적으로 옹호되거나 거부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해방론의 입장에 확고하게 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탐색하고 있는 글은 아직 없”<sup>74</sup>다는 경청할 만한 문제제기가 눈에 띄는 가운데, 태혜숙은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 불 때 기존의 여성해방론은 어느 흐름이건 결국 이성애중심, 백인여성중심, 부르주아계급중심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sup>75</sup>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자들은 남성이론가나 프랑스 여성이론가와와는 달리 무분별한 상대주의의 경향을 경계”<sup>76</sup>한다는 것이 글 전체의 요지였다. 물론 태혜숙은 김영희·이명호·김영미가 쓴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역사적이고 무책임한 상대주의”라고 비난하는 “민족민주운동 진영”<sup>77</sup>에서 씌어진 글임을 서론에서 언급하기는 했으나, 글의 논조 자체가 논쟁보다는 해설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후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요컨대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왕의 진보적 문학운동에 대한 간섭이자 도전으로 여기는 당대 문단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텍스트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교섭이라는 주요 의제가 이성욱이 지적한 바 “모더니즘을 손쉽게 기각”<sup>78</sup>하는 이러한 지적 풍토 속에서 충분히 이슈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압력”<sup>79</sup>으로 존재해 왔던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적 사고와 계

73 태혜숙,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 『이론』 제5호, 진보평론, 1993.7, 60쪽.

74 위의 글, 68쪽.

75 위의 글, 70쪽.

76 위의 글, 80쪽.

77 위의 글, 60쪽.

78 이성욱, 앞의 책, 19쪽.

79 위와 같음.

몽주의 문학관을 그때 만일 누군가가 ‘기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장정일 같은 우리 문학사의 “돌연변이”<sup>80</sup>이거나 非문(단)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문단 바깥으로 눈을 돌려봐야 하는 이유이다.

#### 4 주변부의 인식론적 특권과 또문의 포스트모던 전략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으로 홍수를 이룬 1992년경 문단 바깥 풍경으로 주의를 돌려 보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1984년에 결성된 여성주의 대안 문화 집단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 동인들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기획·발간한 『새로 쓰는 ○○이야기』 시리즈다. 여기에는 또문 동인들이 밝혔듯이 “소유적이고 폐쇄적인 이성애”와 “가부장적 제도로서의 결혼, 그리고 집착적인 성”<sup>81</sup> 등 밑실에 갇혀 있던 경험을 공론화하고, “삶 전체의 기반과 관련되어 있어서 검열이 매우 심”<sup>82</sup>한 결혼과 가족 이야기를 ‘새로 쓰기’하는 “새로운 문화적 전위 집단”<sup>83</sup>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시리즈는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어 온 성과 사랑의 문제를 파격적 형식과 내용을 보장하는 공적 토론의 장으로 끌고 옴으로써 정희진부터 신딸기에 이르는 차세대 페미니스트들<sup>84</sup>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제7호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1991) 및 8호 『새로 쓰는 성 이야기』(1991)와 제11호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1』(1996) 및 12호

---

80 서영채, 앞의 글, 446쪽.

81 「책을 펴내며」,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7), 또 하나의 문화, 1991, 14쪽.

82 「책을 펴내며」,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11), 또 하나의 문화, 1996, 6쪽.

83 위의 글, 5쪽.

84 “6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한 계기로 여성운동 단체 상근자가 되었다. (...) 피해 여성들에게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를 권하면서 ‘또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정희진, 『정희진처럼 읽기』, 교양인, 2014, 33쪽; “‘인생의 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또하나의문화(또문)에서 펴낸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와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라고 답했던 적이 있다.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한 사람만 참으면 온 집안이 조용하다’고 여긴 엄마를 보고 자란 내게 또문의 무크지는 다른 생각을 보여주었다.” 한미화, 「숙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2』(1996) 사이에 놓인 제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1992) 출간이 갖는 함의이다. 1990년대에 와서 “또문의 포스트모던한 경향의 페미니즘이 민족문학론을 폐기”<sup>85</sup>했다는 평가에 드러나는 것처럼 1990년대의 또문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만남이라는 이슈를 문단 바깥 이론과 실천의 현장으로 끌고 나와 그것을 뜨겁게 쟁점화한 후 거꾸로 그 열기를 문단 내부로 향하게 한 장본인이다. 1992년 연말에 발간된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서문에서 또문 동인들은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여성으로 말하기’ 전통과 언어와 정신분석학을 연결한 프랑스의 ‘몸으로 글쓰기’ 이론을 적극적으로 자기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자신의 여자됨에 주눅 들지 않는 여자들의 대장정”<sup>86</sup>을 시작하기 위해 “‘지배자’의 눈을 피해 질러 온 소음들, 울부짖음, 신음소리, 내숨, 지혜의 소리”<sup>87</sup>를 모두 끌어내 볼 것을 제안한다. “남성 중심 언어의 뒷에 걸려 허우적대거나 상업주의에 놀아나”<sup>88</sup>지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의 지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7년에 출간된 제3호 『여성 해방의 문학』의 논조와 짧게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9호 서문에 따르면 3호와 9호는 모두 “여성 억압과 언어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으나, 9호에서는 “당위적인 주장”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3호는 여성문학이 가지는 해방 운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여성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과 특집, 그리고 창작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

---

녀가 되고 싶지 않았던 중세의 소녀], 『한겨레』, 2017.10.12; “내가 여성문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문(또 하나의 문화)의 『새로 쓰는 성이야기』를 읽으면서 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신팔기, 퍼슨웹 인터뷰 ‘즐거운 페미니즘’, 2000.12.1.

(<https://personweb.com/2000/12/01/%EC%8B%A0%EB%94%B8%EA%B8%B0-%EC%A6%90%EA%B1%B0%EC%9A%B4-%ED%8E%98%EB%AF%B8%EB%8B%88%EC%A6%98/>)

- 85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1990년대』, 시공사, 1999, 121쪽.
- 86 「책을 펴내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 하나의 문화 9), 또 하나의 문화, 1992, 21쪽.
- 87 위의 글, 14-15쪽.
- 88 조혜정 외,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46쪽.

수 있다.<sup>89</sup> 한편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용어가 여성해방문학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대체한 9호 동인들의 관심은, 요약컨대 김혜순의 표현대로 “페미니즘적 시각”<sup>90</sup>으로 “포스트모던한 전략”<sup>91</sup>을 구사하는 여성 문인과 지식인에게 집중되었다. 당시 우리 문단 안팎의 최대 화두였던 포스트모더니즘을 언급하면서 서구-이성-남성중심주의적 언어의 해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좌담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을 진행한 또한 동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다양한 포스트모던 조건들을 중요한 “페미니스트 전략”<sup>92</sup>으로 삼자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식수, 이리가래, 크리스테바 등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을 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소화하면서 야심찬 글쓰기 실험을 시도한 것이 9호의 성과였다. 여기서 동인들은 황진이, 허난설헌, 나혜석, 강경애, 백신애, 전해린, 박완서, 김혜순, 샬롯 퍼킨스 길먼, 엘리스 워커, 실비아 플라스 등의 글쓰기를 폭넓게 소개한다. 이에 더해 주부나 기자, 의사 같은 비(非)문인들의 글쓰기에도 “남자 문화의 전유물인 활자를 자기 것으로 뒤틀리지 않게 갖”<sup>93</sup>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돼 있음을 동인들은 드러내고자 했다. 9호 서문에 따르면, 3호의 ‘주장하기’를 대신하여 9호에서 ‘보여주기’ 전략을 취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3호에서 자신들이 구사한 언어가 다름 아닌 ‘남성들의 언어’였다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성의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로서의 요구사항을 소리 높여 주장해 온 자신을 돌아”<sup>94</sup>보게 되었으며, 지금껏 우리는 “남녀의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언어를 잃고 살아왔”기에 지금부터라도 “지배적 언술의 틀”에 매이지 않는 주변인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의 또한 동인들은 이처럼 여성을 포함한 주변인의 말하기·글쓰기가 조한혜정이 말한 바 “자신의 진실한 소망을 표현할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sup>95</sup>는

89 제3호 『여성 해방의 문학』의 내용과 그 의의에 관해서는 이해령, 앞의 글, 435-437쪽 참조.

90 김혜순, 「페미니즘과 여성시」,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219쪽.

91 위의 글, 223쪽.

92 조혜정 외,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51쪽.

93 이나미, 「환자를 돌보듯이 나를 돌보며 글쓰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299쪽.

94 「책을 펴내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14쪽.

95 조혜정, 「성의 사슬 풀고 자기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2, 80쪽.

데서 시작돼야 함을 알아차린 상태였다. 이는 이후 또문 그룹이 조한혜정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천착하게 된 사정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주지하듯 또문 그룹이 기존의 사회운동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문자나 영상 매체로 여성들이 자기표현을 하는 것을 개인과 사회 변혁의 기초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수다’나 ‘내숭떨기’, ‘개기기’ 같은 여성들의 자기표현 양식 역시 전문화된 글쓰기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는 또문 동인들의 인식은, 여성들의 삶과 삶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언어의 민주화”<sup>96</sup>가 필수적이라는 조한혜정의 주장에 집약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소수의 ‘중심’에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한정된 경험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주변화”<sup>97</sup>되고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하게 된 사정과, “서구 중심적인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그들이 만들어 낸 경전적 지배 문화”<sup>98</sup>에 의해 주변부 국가들이 타자화의 역사를 겪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해 ‘식민지화’라는 동일한 과정의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조한혜정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론은, 그러므로 같은 것이며, ‘지식인’의 범주에 드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바로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언어를 되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은 것도 이러한 여성 ‘주체’로 서가는 인식의 과정에서이다.<sup>99</sup> (강조-인용자)

조한혜정은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를 전체와 부분 또는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간의 위계로 사유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는 수평적 연대 차원에서 ‘탈식민화’라는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해결해야 할 지식인의 과업으로 상정된다. 탈식민화의 수행은, 자기 안의 식민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편을 자처하는 서구 세계나 남성 주체가 결국은 하나의 특수한 역사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

96 조혜정 외,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29쪽.

97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또하나의 문화, 1994, 31쪽.

98 위의 책, 29쪽.

99 위의 책, 31쪽.

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자신의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자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리, 새 언어를 만들”<sup>100</sup>어야 한다는 탈식민주의적 입각점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1992년경 우리 문단과 학계를 달군 포스트모더니즘 논란 속에서 또문이 취한 입장의 특수성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즉 앞선 두 장면 즉 표절 논란이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경우에서와 다르게 또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자체로 옹호되거나 거부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또문 동인들은 리얼리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특정 사조 자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다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이들의 관심은 리얼리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 페미니스트 전망 수립과 실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냐라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내가 서구의 ‘탈근대론’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탈근대적 시기에 들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구가 자신들의 ‘근대’를 논의하는 언어의 지평을 알기 위해서이다. (...)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불연속적 자아’라는 것도 ‘봉건’과 ‘근대’와 ‘탈근대’적 상황을 한꺼번에 소화해내야 하는 제 3세계 주민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해 낸 개념일 수 있다. 제 3세계 근대화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미 탈근대의 시작이었다”(김찬오·오테민 외, 『여백의 질서』, 도서출판 일곱, 1993, 471쪽)는 표현은 매우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소셜리즘과 페미니즘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모두 수용한다.<sup>101</sup> (강조-인용자)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사상/사조 자체를 옹호하거나 거부하는 데에는 관심도 목적도 두지 않는 이러한 전략적 포즈는, 여러 사상/사조를 대할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제멋대

---

100 위의 책, 36쪽.

101 위의 책, 33-34쪽.

로, ‘영감’을 얻는 식으로 읽는”<sup>102</sup>”다는 조한혜정의 발언을 그대로 상기시킨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조한혜정과 또문은 진창에 빠지다시피 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수준과 폭을 페미니스트 시각에 따라 요령 있게 재조정하면서, 논란의 이면에 자리 잡은 문단의 ‘주류 콤플렉스’를 던지시 폭로한다.

조혜정: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인화의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든가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같은 소설을 읽으면 (...) 그냥 마구 남의 말을 베끼기도 하고 내뱉어 놓고 있어요. 그런 소설을 좋은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소설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다”고 느꼈다는 말을 듣고 새롭게 평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문단에서도 ‘재현의 위기’ 운운하면서 새로운 진술 양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sup>103</sup> (강조-인용자)

조한혜정이 여기서 언급한 두 소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단 내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품들이다. 문단의 주변 혹은 바깥에 있다는 “주변인 의식”<sup>104</sup>을 날카롭게 세운 때문인지<sup>105</sup> 조한혜정은 이인화와 박일문 소설의 작품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두 소설이 야기한 논란의 ‘효과’를 새로운 글쓰기 모색의 일환으로 전유하는 여유로운 면모를 보인다. 두 작가를 둘러싼 논란은 일반인들에게 문단 권력의 승인 없이도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다는 문턱 낮추기 효과를 발휘해, 결국 문단 권력의 위기를 뜻하기도 하는 ‘재현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두 작품이 포스트모던 소설이

---

102 위의 책, 33쪽.

103 조혜정 외,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44-45쪽.

104 조혜정, 앞의 책, 36쪽.

105 조한혜정에 따르면 “어떤 명백한 박탈적 조건이 있어야 주변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소수의 ‘무단’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이 주변화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관점 내지 시각이며, 그들이 선택한 준거 집단”이다. 위의 책, 218쪽.

나 아니냐,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은 건강하나 아니냐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다른 아닌 그러한 논란 자체가 지식인 남성 리얼리스트가 주도하는 문단 권력의 상대화를 가능케 하리라는 전략적 판단이다. 문단 바깥의 페미니스트 조한혜정은 이미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작가세계』 제3권 1호, 1991)라는 글을 통해 주류 남성 비평계를 향해 포문을 연 바 있다. 핵심은, 그러한 비판이 문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서영인이 1990년대를 여성문학의 부흥기로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1990년대 문단 질서가 지식인 남성의 문학주의로 되돌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sup>106</sup>

9호에 실린 김은실의 「고정희 선생님이 죽었다?」는 지식인 남성 중심의 문단 권력을 향한 또문 동인들의 이러한 비판의식을 생생히 그려낸 글로 주목된다. 고정희가 갑자기 타계한 후 쓰인 이 조문(弔文)은 망자의 명복을 기리는 일반적 조문과 다르게 철저히 ‘페미니즘적 시각’과 ‘포스트모던한 전략’에 따라 씌어진 미학적·정치적 텍스트이다. 여기에는 ‘여성 시인’ 고정희가 문단 내에서 얼마나 주변적 존재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공식 의례를 집행하는 남성 문인들이 또문 동인들을 어느 정도로 고정희의 “사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 취급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고정희의 죽음을 ‘민족시인장’이라는 공식 의례로 애도하면서도 고정희를 끝내 “보호자 없이 처녀로 죽은”<sup>107</sup> ‘어린 누이’로 간주하는 광주 남성 문인들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김은실은 분개한다. 그들은 한결음에 달려간 또문 동인들을 단지 “고정희 선생님의 친한 여자 친구로 범주화”하면서 아무도 “공식 의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sup>108</sup>는다. 고정희를 “여성주의 시인”으로 추도하려는 또문 동인들의 시도는, “문인도 아닌”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남성이 주도하는 공식 의례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주제 넘는 간섭으로 비춰질 따름이다. 고정희를 ‘민족시인’의 애인이자 누이로 애도하는 남성 문인들과, 그녀를 “여성주의 시인”으로 보내려는 또문 동인 간의 갈등이 묘사된 아래 인용문을 보자.

106 서영인, 앞의 글.

107 김은실, 「고정희 선생님이 죽었다?」,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108쪽.

108 위의 글, 108쪽.

「또 하나의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주의 시인으로서의 고정희를, 시집 못 보낸 채 묻는 것이 슬퍼 누이로 애인으로 가슴에 품은 오라비들로부터 그를 빼내기 위해, 차미레 씨를 내세워 적어도 유고 정리에는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시영 씨에게 전했다. 그들은 이러한 우리의 뜻을 그리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곳에서 고정희에 대해 대단히 이상한 애정을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문인도 아닌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이…….<sup>109</sup> (강조-인용자)

유려하면서도 도발적 문체로 씌어진 위 글에서 김은실은, 고정희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문에 대한 조문, 즉 메타 조문의 지평을 제시한다. 소설에 대한 소설, 즉 메타 픽션이 포스트모던한 글쓰기 양식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페미니스트 김은실의 메타 조문은 그 자체로 깊은 미학적·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기독병원의 영안실 마당에서 그리고 해남의 장지에서 공식적인 모든 의례는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고정희 선생은 이런 의례 형식을 싫어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하지 못한 채 죽은 노처녀에 대한 아쉬움과 애도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예(禮)의 형식이 부재한 이런 가부장제 의례 속에 그를 방치해서는 안 되었다. (...) 고정희 선생은 광주에서 우리들을 비장하게 만들었다.<sup>110</sup> (강조-인용자)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김은실의 메타 조문에 드러난 바대로 또문 동인들이 남성중심주의적 문단을 향해 이 같은 ‘비장한’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데에는 『또문』이라는 잡지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명실상부하게 자립성과 독자성을 갖춘 페미니스트 매체로 도약하게 된 사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109 위의 글, 111쪽.

110 위의 글, 112쪽.

또문 동인들이 애초에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다. “활자매체를 통한 운동”과 “지면에서의 만남”이 그것이다. 창간호에서 조한혜정은 멤버들이 몸을 부대끼며 열렬히 토론하며 말을 섞는 기왕의 운동 방식과 다르게 철저히 활자매체 중심의 운동 문화를 지향한다고 했고, 조은 역시 또문의 운동은 “지면에서의 만남” 위주로 간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sup>111</sup>

활자매체 중심의 지면 운동을 펼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을 외부 자본의 의존 없이 수행하기 위해 또문 동인들은 1990년 자체 출판 방식으로 잡지를 출간하고<sup>112</sup> 1992년에 이르러서는 출판 조직으로서의 틀을 제대로 갖춘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를 설립한다.<sup>113</sup> 또문 동인들은 특정 잡지를 소유·운영·기획·편집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필요에 따라 여성 필자들이 호출”<sup>114</sup>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욕망과 비전에 따라 잡지를 직접 만들어 내는 혁신을 이룬다. 그 결과 『또문』은 여성이 글을 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씌어진 글이 여성 자본가·기획자·편집자·기술자에 의해 출간된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페미니스트 매체로 거듭난다.

세기말을 앞둔 1990년대 『또문』 동인들은 “집단적인 붕괴감”<sup>115</sup>에 빠지기는커녕 “기획, 집필, 인쇄, 출간, 유통 등 온통 “남성들의 것”이었던 “글쓰기의 물질성”<sup>116</sup>에 명실상부한 “성적 혁신”<sup>117</sup>을 가져오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에 넘쳐

111 조혜정 외, 「‘또 하나의 문화’를 펴내며」,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또 하나의 문화 1), 평민사, 1985, 27-28쪽.

112 「21세기를 먼저 시작한 ‘또 하나의 문화’」, 『여성신문』, 2005.5.1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7>

113 고명섭, 「책을 만드는 사람들 30—또 하나의 문화」, 『한겨레』, 2000.1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48000/2000/009048000200010081909001.html>

114 서영인, 앞의 글, 19쪽.

115 이명원, 앞의 글, 같은 쪽.

116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김남시 역,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2019, 340쪽.

117 위의 책, 353쪽.

있었다. 편집장 안희옥의 글에 담긴 다음과 같은 대조적 기억들이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전해준다.

(a) 드디어 편집장이 되었다. 그것도 한국 문화의 선두 주자로 이름 높았던 유명 출판사에서. 대학 교수들과 일류 문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사장실은 일종의 살롱 같았다. 어느 날, 그 살롱으로 불려 갔다. 안경 낀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왜 자신의 원고를 고쳤냐고 화를 냈다. 조사 하나를 바꾸었던 나를 얼떨떨해졌다. 함께 있던 주간이 눈을 내리깔고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대학밖에’ 나오지 못한 젊은 여자가, 오랜 세월 학문에 정진해 오고 ‘유학’까지 갔다온 ‘대학 교수’의 글을 고칠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고. “건방진 짓 하지 마라.” 그 교훈을 새겨들은 나는 그 다음부터 교수의 원고라면 점이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불펜뿜인지 온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조를 하고, 아무리 어색한 문장이라도 조금도 고치지 않는 강훈련을 했다. 감옥이나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계급 타파를 꾀하는 친구들이 그리웠던 시절이었다.<sup>118</sup> (강조-인용자)

(b) 새로운 내용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책. 그림과 사진 등 볼거리가 많은 책. 그러려면 종래의 활판 인쇄로는 불가능했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 당시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수동 사식 기술로 쪽마다 일일이 대지 작업을 하며 복디자인을 했다.<sup>119</sup> (강조-인용자)

(c) 불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바람같이 나타나서 원고를 다듬고는 씩 웃으며 바람같이 사라지던 조혜정 동인. (...) 혹시 책이 잘못 될까봐 바짝 긴장하여 교정지까지 살펴보던 고정희 동인. (...) <오늘의 책>에 선정되어 상까지 받았는데도 복디자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던

---

118 안희옥,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살고 싶은 세상』(또 하나의 문화 10), 또 하나의 문화, 1994, 93쪽.

119 위의 글, 96쪽.

조은 동인. (...) 그 외에도 많은 동인들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sup>120</sup> (강조-인용자)

인용문 (a)에서 안희옥은 책 만드는 일을 해 온 15년간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과거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 여기서 안희옥은 편집장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유학 다녀온 권위 있는 교수의 글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건방진 여자’로 낙인 찍혔던 경험을 담담히 서술한다. 여성 편집장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지위였는지를 드러내는 위 장면은, 남성의 글이 “남성 식자공, 남성 제본공, 남성 출판업자 등을 거쳐 인쇄되어 소녀들에게 도달”했기에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성적으로는 일방적인 폐쇄회로”<sup>121</sup>였다는 키틀러의 지적을 그대로 상기시킨다. 남성중심주의적 출판계에서 여성은 편집장이 되어도 ‘권위 있는 어른’의 글자 하나도 고쳐서는 안 되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반면 (b)와 (c)에서 『또문』 동인들은 기획, 편집, 제작, 출간 등 전 영역에서 주연을 맡는다. 잡지 제작 풍경을 묘사하면서 안희옥은 『또문』이 여성 동인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여성의 글을 여성 기술자가 편집하고 디자인해 여성 출판업자가 인쇄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한 명실상부한 페미니스트 매체였음을 강조한다.

또문 동인들은 자신들이 녹음기를 든 ‘대변자’가 아니라 펜을 든 ‘주변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 잡지를 직접 기획, 제작, 편집하고 인쇄, 출간하는 잡지 생산의 주역으로 1990년대를 경험한다. “시대를 앞서 가는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주변인으로서 글쓰기를 시작한다.”<sup>122</sup> 이러한 자각이 동인들로 하여금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포스트모던 전략’에 따라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게 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또문은 시대를 앞서가는 전위적 무크 『새로 쓰는 ○○이야기』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탈식민지주의 페미니즘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1990년대 또문에는 여성이 자명한 ‘전체’라고 가정된 어떤 운동의 ‘부분 운동’<sup>123</sup> 종사자이

120 위의 글, 96-97쪽.

121 프리드리히 키틀러, 앞의 책, 340쪽.

122 「책을 펴내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21쪽.

123 “80년대의 여성운동계가 이룩한 성과는 (...)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분운동으로서 여

기를 그치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 자체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메타 운동’의 주도로 변신을 꾀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표절을 옹호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타락한 자식으로 리얼리즘에 도전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잘못 제기된 문제들이다. 관건은, 변화하는 국면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을, 혹은 리얼리즘을, 페미니스트 시각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절합하느냐에 놓여 있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이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양적 팽창으로 형성된 1992년의 국면적 특수성에 주목해 서로 다른 행위주체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예술론이 작품 표절 논란과 오버랩되면서 그 담론의 ‘수준’뿐 아니라 재능 있는 비주류 신예들의 위상까지 동반 하락하게 된 상황. 둘째, 서구 탈근대 사상이 기왕의 여성해방문학론자들의 견해와 맞부딪히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폭’이 리얼리즘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로 협소화되는 과정.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수준’과 ‘폭’이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 ‘또문’에 의해 획기적으로 재조정되는 양상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비주류 신인 이성옥이나 장정일 등이 수준 높은 평문을 제출하면서 문단 권력과 학계에 도전했으나 끝내 기성 평단의 체질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그려졌다. 3장은 기왕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론에 기대어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이론적 제후를 거부하다시피 한 『여성과 사회』 필진의 글을 분석한 것으로, 서구 탈근대 페미니즘 이론에 매우 방어적으로 반응한 이들이 주류 리얼리즘 진영의 모더니즘 비판론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양상이 여기서 고찰되었다. 4장에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자체 출판 조직을 갖춘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 또문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었다. 또문 그룹은 논

---

성운동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제67호, 창작과비평사, 1990년 봄, 49쪽; 강조-인용자)이라는 필자들의 판단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란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그 자체로 옹호하거나 거부해야 할 하나의 사상/사조로 대한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시각에 따라 포스트모던 전략을 구사하면서 실험적 글쓰기를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담론 주도자로 활약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또문은 차세대 페미니스트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전위적 무크『새로 쓰는 ○○이야기』 시리즈를 선보이는 동시에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천착을 통해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의 연쇄적 해결을 꾀해본다. 문단 내 비주류의 도전과 좌절, 주류 리얼리즘 평단의 헤게모니 재생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제한된 포스트모던 조건 속에서, 문단 바깥의 페미니스트 또문 그룹은 그 주어진 조건을 포스트모던 전략에 따라 거꾸로 제약하면서 기성 학계와 문단의 ‘주류 콤플렉스’를 가시화하고 문제시하는 글쓰기 실천을 수행한다.

1992년 한 해 동안 벌어진 문단 내 비주류의 모색과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의 활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90년대적인 것들’의 목록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증좌인 셈이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그 시기가 ‘집단적 붕괴감’에 빠진 우울한 날들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견은,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한 1990년대 문학 연구가 저명 작가나 기성 문단 중심의 논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탈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문학사의 어느 시기이나 주류는 존재했고 그로부터 소외되거나 그에 맞선 비주류 또한 늘 있어왔다. 다만 1990년대를 학문적으로 영토화하는 작업에서 중심보다는 주변의 관점을 되살리는 일이 특히 긴요한 이유는, 그것이 1990년대를 1980년대와의 결별이 아닌 2000년대와의 접속이라는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 문학사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룬 것이 페미니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단 바깥 페미니스트 그룹 또문이 주변부의 인식론적 특권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전략적으로 자원화하면서 지식인-남성-리얼리스트 중심의 문단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1992년경은 우리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된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 당시 우리의 지적 풍토에서 탈근대 철학은 탈근대 철학대로 현실 연관성을 상실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대로 이론적 기반을 잃은 채 각각 공전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으로 글쓰기·여자로 말하기라는 페미니스트 화두를 던짐으로써 탈근대 철학의 현실 연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

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정치적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한 또문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만남이라는 세기말의 지성사적 사건을 왜 새삼 재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문단 바깥에서 일어난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이 우리 문학에 준 충격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 충격의 여진이 지금껏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강내희,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월간 사회평론』 제91권 6호, 사회평론, 1991, 182-201쪽.
- 권택영·김성곤·김옥동·도정일·신정현·이정호, 「특집좌담: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쟁점들」, 『미국학』 제15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2, 73-94쪽.
- 김선학·김명인·권오룡, 「문학의 위기, 위기의 문학」, 『현대문학』 제438호, 현대문학사, 1991.6, 36-55쪽.
-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992년 봄, 35-79쪽.
- 김옥동, 「'리얼리즘'의 잣대를 버려라」, 『중앙일보』, 1992.5.28.
- 김진석, 「에피모더니즘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사회』 제4호, 문학과지성사, 1991. 11, 1569-1586쪽.
- 도정일, 「포스트모더니즘—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비평』 제71호, 창작과비평사, 1991년 봄, 301-320쪽.
- \_\_\_\_\_, 「시뮬레이션 미학, 또는 조립문학의 문제와 전망—이인화의 '혼성기법'이 제기하는 문제들」, 『문학사상』, 문학과사상사, 1992.7, 309-341쪽.
- 류철균, 「새 기법 '관행'으로 평가 말자」, 『중앙일보』, 1992.5.18.
- 이남호·박상천·이동하, 「'91 문학총평」, 『현대문학』 제444호, 현대문학사, 1991.12, 36-55쪽.
-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제67호, 창작과비평사, 1990년 봄, 48-74쪽.

이성옥, 「심약한 지식인에 어울리는 파멸」, 『한길문학』 제13호, 한길사, 1992년 여름, 270-298쪽.

\_\_\_\_\_, 「정당성 잃은 인용은 곧 표절」, 『중앙일보』, 1992.5.21.

\_\_\_\_\_,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13-114쪽.

이소영·정정호 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이정우, 「포스트모더니즘은 없다—우리에게 프랑스 철학이 필요한가? 그렇다」, 『월간 사회평론 길』 제97권 6호, 사회평론, 1997, 186-193쪽.

장석주, 「세기말적 상상력,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현단계」, 『문학정신』 제52호, 열음사, 1991.1, 222-229쪽.

장정일, 「‘베끼기’의 세 가지 층위」, 『문학정신』 7-8월 합본호, 열음사, 1992, 210-217쪽.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제3권 1호, 작가세계, 1991, 97-144쪽.

\_\_\_\_\_,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또하나의 문화, 1994.

최원식·윤지관·유중하·조만영,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학」, 『창작과 비평』 제76호, 창작과비평사, 1992년 여름, 6-60쪽.

태혜숙,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 『이론』 제5호, 진보평론, 1993.7, 60-83쪽.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1990년대』, 시공사, 1999.

프레드릭 제임슨·백낙청, 「특별대담—맑시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화운동」, 『창작과비평』 제18호, 창작과비평사, 1990.3, 268-300쪽.

『또 하나의 문화』

## 단행본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_\_\_\_\_,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문광훈, 『정열의 수난—장정일 문학의 변주』, 후마니타스, 2007.

서영채,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428-446쪽.

윤건차, 장화경 역,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당대, 2000.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루이스 램피어 엮음, 권숙인·김현미 역, 『여성·문화·사회』, 한길사, 2008.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김남시 역,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2019.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문현아 역, 『경계 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 논문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제51집, 상허학회, 2017.10, 15-49쪽.

나종석, 「90년대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사 연구—학제적 주제의 사회인문학적 탐색 시도」, 『철학연구』 제120집, 대한철학회, 2011, 83-108쪽.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쪽.

이명원, 「문학의 탈정치화와 포스트 담론의 파장—민주화 이후 한국문학의 전개와 쇠락」, 『민족문화연구』 제5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21-151쪽.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상허학회, 2016.6, 409-454쪽.

조연정, 「『문학동네』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21-246쪽.

\_\_\_\_\_,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 『대중서사연구』 제48호, 대중서사학회, 2018.11, 329-374쪽.

진태원, 「‘포스트’ 담론의 유령들—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민족문화연구』 제5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5-55쪽.

허 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정치학」,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6, 85-117쪽.

기타

고명섭, 「책을 만드는 사람들 30—또 하나의 문화」, 『한겨레』, 2000.10.8.

장정일 인터뷰, 『경향신문』, 2016.9.11.

\_\_\_\_\_, 「개인기록」, 『문학동네』 제18호, 문학동네, 1999년 봄, 1-13쪽.

황종연, 「『늬을 건너는 법』 혹은 포스트모던 로맨스-소설의 탄생—한국문학의 1990년대를 보는 한 관점」, 『문학동네』 제89호, 문학동네, 2016년 겨울, 445-492쪽.

「21세기를 먼저 시작한 ‘또 하나의 문화’」, 『여성신문』, 2005.5.12.

## Abstract

Postmodern Condition in Feminism

Son, Youkyung

Being critical of the fact that the 1990s was experienc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his study traces the attempts and achievements of various actors in 1992, which was a year of dramatic quantitative expansion of postmodern discourses. As postmodern controversy peaked in 1992, the non-mainstream groups of academia and literary circles seemed to have found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voice their opinions. However, as claimed by Jang Jeong-il that “even copying comes in different levels,” postmodern theories of literature and art were swept up in controversy, and literary circles solidified their authority. Given the strong hegemony of literary critics, the postmodern philosophy of French feminism was seen as no more than an imported good that threatened literature of women’s liberation, resulting in an anamorphic concept of modernism known as postmodern theory of women’s liberation. Amid the limited standard and breadth of postmodern discourses, feminists outside literary circles were the ones who opened a new window to a possible theoretical alliance between postmodernism and feminism. Like-minded individuals came together in the 1990s to form Alternative Culture (*Ttmoon*), which utilized its own capital and technology for the planning, edi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magazines. Working against postmodern condi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non-main-

stream writers and reproduction of hegemony of critics, they visualized the “mainstream complex” of existing academia and literary circles, and developed radical content for next-generation feminists. At the same time, *Ttmoon* examined postcolonial feminism based on epistemological privilege of the periphery, thereby seeking a series of solutions to ethnic and women’s issues. Looking at 1992 alone, it is evident that the list of what we associate with the 1990s is highly limited. This period was not perceived as a depressing time of “collective collapse” in the eyes of non-mainstream writers such as Lee Seong-uk and Jang Jeong-il, and feminists outside literary circles who were members of *Ttmoon*.

Key words: Literature in 1990s, Postmodernism, Feminism, Literature of Women’s Liberation, Postmodern Theory of Women’s Liberation, Modernism, Postmodern Condition, *Ttmoon*, Postcolonial Feminism, Lee Seong-uk, Jang Jeong-il

본 논문은 2020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